



줄리안 밀러 선생님과 제자훈련

줄리안 선생님이 그레이스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겨우 22세였습니다. 줄리안 선생님 수중에는 1,500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걸음이었고 나머지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줄리안 선생님은 8학년(중2)때 그레이스 학교에 처음 왔습니다. 부모님이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둔 사역을 하기 위해 치앙마이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줄리안 선생님은 팀 스포츠를 전혀 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한 번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잘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했지만 그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스포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레이스 학교에 다니면서 줄리안 선생님은 공동체와 교사들과 코치들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젊은 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체육교육 학위를 받고 그레이스 학교로 돌아와 일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선생님은 스포츠와 복음에 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이스 학교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의 성경적인 통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제자훈련입니다." 줄리안 선생님은 제자훈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줄리안 선생님은 스포츠 경기를 위해 여행을 하거나 음식점에서나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삶에 대해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을지 보여줍니다.

줄리안 선생님이 1,500달러를 다 쓰고 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동료 교사들이 숙소를 무료로 제공했고 친구가 차량을 빌려줬습니다. 줄리안 선생님은 그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 갔고 정기적으로 그를 후원할 헌신적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주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월 청구서를 납부하고 대출금을 갚으며 음식을 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